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은 정치사상적위력을 높이 떨치기 위한 기본요인

림 철

정치사상적위력은 우리 국가의 제일국력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위력한 추동력이다.

정치사상적위력과 군사력, 경제력은 국력의 기본요소이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정치사상적위력이다.

방대한 인구와 령토, 위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있다고 하여도 정치사상적위력에 의하여 담보되지 못하는 나라는 강국이라고 말할수 없다.

사회주의강국은 무적의 군사강국, 강력한 경제강국에 앞서 정치사상적위력이 세계최고의 높이에 올라선 나라이다.

우리 공화국이 정치사상적위력을 더욱 높이 떨치면서 사회주의강국의 높은 령마루를 하루빨리 점령할수 있는 근본비결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발양하는데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이야말로 사회주의정치사상적위력을 높이 떨치기 위한 기본요인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대중의 정신력이 모든것을 결정합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이 사회주의정치사상적위력을 높이 떨치기 위한 기본요인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온 사회의 사상적일색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해나갈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기때문이다.

온 사회의 사상적일색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은 혁명과 건설이 심화될수록 더욱 강화하여야 할 사업이다. 혁명의 전진과 함께 온 사회의 사상적일색화를 새로운 폭과 심도를 가지고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갈 때에만 사회주의정치사상적위력을 높이 떨칠수 있다.

온 사회의 사상적일색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해나가기 위한 근본비결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 수령결사옹위정신에 있다.

수령결사옹위정신은 **김일성**민족의 고유한 사상정신적특질이며 무한대한 정신력의 근본핵이다.

오늘 수령결사옹위정신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무비의 정신력의 최고표현으로, 모든 사고와 실천의 출발점으로 되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 수령결사옹위정신은 우선 우리 군대와 인민들로 하여금 수령의 혁명사상과 로선을 옹호고수함으로써 온 사회에 수령의 혁명사상만이 유일적으로 지배하도록 한다.

수령의 혁명사상과 로선을 옹호고수하는것은 수령결사옹위의 중요한 요구이다. 수령의 혁명사상과 로선을 옹호고수한다는것은 수령의 혁명사상과 로선의 진리성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고 그 순결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하여 정치사상적으로 견결히 싸워나간다는것이다.

수령의 혁명사상과 로선은 인민대중의 지향과 념원, 혁명발전의 요구를 반영하여 시대와 혁명의 앞길을 가장 정확히 밝혀주는 혁명의 지침이며 승리의 기치이다. 혁명의 원쑤들이 수령을 반대하는데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는것은 중요하게 혁명을 가장 옳바른 길로 향도하는 수령의 혁명사상과 로선을 말살하자는데 있다.

오늘 우리 혁명의 앞길에는 모진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여있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언제 어디서나 수령의 혁명사상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옹호고수하려는 투철한 신념과 의지, 수령결사옹위정신을 굳게 간직하여야 온 사회에 수령의 혁명사상만이 유일적으로 지배하게 할수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수령의 혁명사상을 자기들의 유일하게 옳바른 세계관으로 삼고 그것을 자로 하여 모든것을 재여보고 사고하며 행동하는것을 철칙으로 여기는 정신, 수령의 혁명사상과 어긋나는 잡소리가 나오고 이색적인 요소가 발로된다면 절대로 융화목과하지 않고 단호히 짓밟개버리는 정신으로 충만될 때 온 사회에 수령의 사상만이 유일적으로 지배하는 사상적일색화를 실현할수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위대한 정신력, 수령결사옹위정신은 또한 우리 군대와 인민들로 하여금 수령의 혁명사상과 로선을 결사관철함으로써 수령의 구상과 의도가 현실로 꽃피어나도록 한다.

온 사회의 사상적일색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자면 수령의 혁명사상과 로선을 옹호고수하여 온 사회에 수령의 혁명사상만이 유일적으로 지배하게 할뿐아니라 그것을 결사관철하여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

수령의 혁명사상과 로선을 결사관철하는것은 수령결사옹위의 중요한 요구이다. 수령의 혁명사상과 로선을 결사관철한다는것은 그 어떤 조건에서도 수령의 사상과 지시를 어김없이 수행하고 수령이 맡겨준 혁명과업이 아무리 어려운것이라고 하여도 철저히 자체의 힘으로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그 관철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자기 한목숨도 기꺼이 바쳐 싸워나간다는것이다.

수령의 사상과 로선을 결사관철하는것은 원래 혁명운동수행에서 필수적인 문제로 나서게 된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구축하는 온갖 낡은것을 청산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전면적으로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혁명의 숭고한 목적은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하고 그것이 철저히 구현된 사회, 인류의 이상사회를 건설할 때 실현될수 있다.

혁명수령의 혁명사상과 로선을 현실로 실현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전진하고 승리를 이룩해나간다.

수령은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인민대중의 지향과 념원, 시대와 혁명의 요구를 반영하여 가장 옳바른 투쟁방향과 방도를 밝혀주는 혁명사상과 로선을 제시하며 인민들은 그것을 지침으로, 투쟁의 무기로 삼고 혁명과 건설을 진행해나간다. 수령의 혁명사상과 로선이 없다면 혁명이 전진할수도 승리할수도 없다. 따라서 혁명을 전진시키고 승리로 이끌어다가자면 수령의 혁명사상과 로선을 결사관철하여 수령의 구상과 의도를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

수령결사옹위정신은 군대와 인민이 수령의 혁명사상과 로선을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 창발성과 완강성을 발휘하여 결사관철하도록 한다. 물론 수령의 혁명사상과 로선을 관철하는 과정에는 애로와 난관이 있을수 있고 예상치 않았던 문제들이 련이어 제기될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떤 각오와 결심, 정신력을 가지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떨쳐나서는가 하는데 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수령의 혁명사상과 로선을 무조건 끝까지 결사관철하겠다는 강한 정신력,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지닐 때 수령의 혁명사상과 로선이 빛나는 현실로 펼쳐지게 된다. 수령의 혁명사상과 로선을 결사관철하는 수령결사옹위정신이 온 사회에 짝 차넘칠 때 수령의 의도대로 혁명과 건설이 추진되어 온 사회의 사상적일색화가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어나가게 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이 사회주의정치사상적위력을 높이 떨치기 위한 기본요인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사회정치적지반을 더욱 공고히 다지게 하는 결정적담보이기때문이다.

정치사상강국은 가장 공고하고 위력한 사회정치적지반을 가진 나라이다.

강국의 공고성과 위력은 그가 의거하고있는 사회정치적지반에 의하여 규제된다. 튼튼한 사회정치적지반은 인민대중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굳게 묶어세워야 마련될수 있다.

인민대중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우지 못한 나라는 정치적소요와 동란을 면할수 없으며 자주적인 정치도 실현할수 없게 된다. 이러한 나라는 결코 정치강국으로 될수 없다.

가장 공고하고 위력한 사회정치적지반은 령도자를 중심으로 군대와 인민이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결합된 일심단결이다.

온 사회의 일심단결은 령도자를 중심으로 당과 군대와 인민이 하나의 사상의지와 숭고한 도덕의리로 뗄수없이 결합된 가장 공고하고 위력한 단결이다. 령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을 빛나게 실현하고 그 위력으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가는 나라가 바로 정치사상강국이다.

사회정치적지반을 공고히 다지게 하는 근본비결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위대한 정신력에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위대한 정신력은 사회정치적지반을 공고히 다지게 하는 결정적담보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은 군민대단합을 더욱 확고히 실현하게 함으로써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보다 강화해나갈수 있게 한다.

사회주의정치를 떠받들고있는 중요한 기둥은 군대와 인민이다. 군대와 인민이 굳게 단결하여야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이 공고화되고 정치적력량이 강화되게 된다.

군대와 인민의 단합, 군민일치에서 기본은 군대와 인민의 사상의 일치, 투쟁기풍의 일치를 보장하는것이다. 군대가 인민을 사랑하고 도와주며 인민이 군대를 성심성의로 원호하는것만 가지고서는 군민대단합, 군민일치가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말할수 없다.

군민대단합, 군민일치의 공고성과 위력은 단순히 군대와 인민이 서로 돕고 원호하는 데만 있는것이 아니라 군대와 인민이 하나의 사상을 가지고 한본새로 일하며 투쟁해나가는 완전한 일심동체를 이루는데 있다.

군대가 인민을 돕고 인민이 군대를 성심성의로 원호하는 문제도 군대와 인민의 사상의 일치, 투쟁기풍의 일치를 실현할 때 더욱 원만히 실현될수 있다. 비록 한전호에서 같이 싸우지는 않아도 하나의 사상을 가지고 한본새로 일한다면 그것이 곧 군민대단합, 군민일치이다.

군대와 인민의 사상과 투쟁기풍의 일치의 사상정신적기초는 수령결사옹위, 결사관철의 정신이다. 수령결사옹위, 결사관철의 정신은 우리 군대가 체질화한 고결한 혁명정신이다.

따라서 군대와 인민의 사상과 투쟁기풍의 일치는 사상과 투쟁기풍에서 본보기인 혁명군대가 핵심적, 선도자적역할을 강화하고 전체 인민이 혁명군대의 사상과 투쟁기풍을 적극 따라배워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성과적으로 실현된다.

군대와 인민의 사상과 투쟁기풍의 일치는 그들이 수령결사옹위, 결사관철의 정신을 얼마나 체질화하고 높이 발양하는가 하는데 따라 그 성과가 크게 좌우된다.

정신력의 근본핵인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체질화한 우리 인민군대가 사상과 정신, 도덕과 문화의 모든 면에서 사회의 본보기가 되어 핵심적, 선도자적역할을 높여나간다면 그것은 그대로 우리 인민에게 커다란 고무적힘과 영향을 주게 된다. 우리 인민들은 인민군대가 체질화한 수령결사옹위, 결사관철의 정신에서 자기들이 지녀야 할 정신력의 높이를 똑바로 자각하고 인민군대처럼 사상과 신념의 강자, 정신력의 강자로 자라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과 투쟁기풍의 일치가 더욱 확고히 실현되어 혁명대오의 가장 공고한 일심단결, 튼튼한 사회정치적지반이 마련되어나가게 된다.

우리 혁명대오안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만을 이 세상 끝까지 따르려는 고결한 량심과 불변의 신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만을 결사옹위하며 최고령도자동지의 구상과 의도를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는 결사관철의 의지가 세차게 맥박칠수록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 전군, 전민의 일심단결이 보다 높은 단계에서 더욱 공고발전되어나가게 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이 사회주의정치사상적위력을 높이 떨치기 위한 기본요인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자주적대를 강하게 세워나갈수 있게 하는 사상정신적원천이기때문이다.

정치사상강국은 자주적인 정치를 실시하는 나라, 자주적대를 강하게 세워나가는 나라이다.

정치적자주성은 자주독립국가의 첫째가는 징표이며 제일생명이다.

인민대중의 운명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하나로 결합되어있으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자주적인 정치에 의하여 담보된다. 정권은 있어도 자주적인 정치를 실시하지 못하면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리익을 고수할수 없으며 인민대중은 노예의 운명을 면할수 없게 된다.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며 따라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완성해나가는 과정은 정치에서 자주적 원칙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정치에서 자주성을 철저히 견지하는것이 더없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오늘의 현실은 정치에서 자주적대를 강하게 세우고 자주적인 정치를 실시하는 나라

만이 그 어떤 력사의 풍파와 도전에도 끄떡없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는 강국으로 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자주적대를 강하게 세워나갈수 있게 하는 근본비결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위대한 정신력에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위대한 정신력은 자주적대를 강하게 세워나갈수 있게 하는 사상정신적원천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은 우선 모든 로선과 정책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처리해나가게 하는 힘의 원천이다.

정치에서 기본은 로선과 정책을 규정하고 집행하는것이며 모든 로선과 정책을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집행하여야 자주적인 정치라고 말할수 있다. 로선과 정책을 독자적으로 결정한다는것은 로선과 정책을 그 어떤 외세의 간섭이나 압력, 기성의 리론에 구애됨이 없이 자기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세운다는것을 의미한다. 남의 압력과 간섭을 허용하거나 남의 지시봉에 따라 움직이게 되면 원칙성과 일관성을 견지할수 없고 나중에는 혁명과 건설을 망쳐먹게 된다.

로동계급의 당의 로선과 정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전략과 전술이며 행동의 지침이다. 따라서 로동계급의 당의 로선과 정책에는 반드시 자기 인민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 자기 나라의 구체적현실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자기 인민의 요구와 자기 나라의 현실을 떠난 로선과 정책이 있다면 그것은 혁명과 건설에 아무런 의의도 없으며 오히려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게 된다. 오직 혁명적이고 인민적이며 현실적인 로선과 정책만이 혁명과 건설을 향도하는 정치적무기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있다.

로선과 정책에 자기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의 현실적조건을 정확히 반영하려면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려는 정치적주견과 신념이 있어야 한다.

혁명과 반혁명과의 치열한 대결속에서 진행된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외세의 침략과 간섭, 압력책동은 끊임없이 계속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자기 식으로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혁명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가자면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단호히 배격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자기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려는 정치적주견과 신념을 내세워야 한다.

자기 나라 혁명과 인민의 리익이 가장 귀중하며 그 누구도 침해할수 없다는 관점과 립장,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자기 인민의 리익을 끝까지 실현하겠다는 굳은 신념이 있어야 모든 로선과 정책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혁명을 주동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지닌 위대한 정신력은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라는 자각에 기초한 사상정신적힘으로서 항상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신이 책임지고 자기의 리익과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도록 추동하며 우리 수령, 우리 당, 우리 사상, 우리 군대와 인민이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높은 민족적공지와 자부심, 민족의 존엄과 위력을 더욱 높여나가려는 드팀없는 자각과 의지로 발현되는 강한 사상정신적힘으로서 언제나 사대와 교조, 외부의 간섭과 압력을 단호히 반대배격하고 자주로선을 견지해나가도록 떠밀어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은 또한 자기가 세운 로선과 정책을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철저히 관철해나갈수 있게 하는 힘의 원천이다.

로선과 정책을 정확히 규정한 다음에는 그것을 자기 인민에게 의거하여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비록 로선과 정책이 과학적으로 정당하게 세워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현하는데서 자기 인민에게 의거하지 않는다면 정치에서 자주성을 견지한다고 말할수 없다.

정치에서 자주성을 견지하자면 로선과 정책을 자기 식으로 독자적으로 세우는것과 함께 그것을 자기 인민에게 의거하여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모든 로선과 정책을 자기 인민에게 의거하여 관철한다는것은 로선과 정책을 자기 인민의 혁명적열의와 무궁무진한 창조적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실현한다는것이다.

로선과 정책을 자기 인민에게 의거하여 관철하자면 자기 인민의 힘을 믿어야 한다. 자기 인민의 힘에 대한 믿음이 없이 그들에게 의거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인민대중의 힘에 대한 믿음은 인민대중이 혁명투쟁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전제로 한다. 인민대중이 혁명투쟁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잘 알아야 인민대중의 힘을 굳게 믿고 그에 의거할수 있다.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혁명투쟁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 인민대중은 혁명을 일으키고 떠밀어나갈수 있는 자주적인 요구와 창조적인 힘을 지니고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를 떠나서 혁명의 발생발전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인이고 혁명투쟁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는것은 그들의 힘이 세상에서 가장 위력하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이 세상에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아닌 인민대중이다. 그러므로 혁명투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는 인민대중, 자기 인민에게 의거하여 풀어나가야 한다.

우리 인민의 위대한 정신력은 혁명과 건설을 떠밀고나가는 힘은 오직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드립없는 자각에 기초한 사상정신적힘으로서 그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남의 힘이 아니라 자기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앞당겨올수 있게 적극 고무추동한다. 뿐만아니라 세상에서 자기 힘이 제일이며 자기 힘을 믿고 일떠설 때 점령 못할 요새도 극복 못할 난관도 없다는 확고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 언제나 혁명과 건설을 패기있게 진공적으로 밀고나가게 한다.

우리 인민의 이런 위대한 정신력이 있는 한 혁명과 건설에서 언제나 우리의 리익에 맞는, 우리 인민자체의 힘에 의거하는 자주정치를 더욱 철저히 실현해나가게 된다. 자기 힘에 대한 확신과 믿음,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 강毅한 신념과 의지가 없다면 자그마한 난관과 시련이 가로놓여도 자기 힘으로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포기하게 되며 종당에는 외부의 간섭과 압력에 쉽게 굴복하게 된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앞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강국건설념원을 받들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밑에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워야 할 영예롭고도 성스러운 임무가 나서고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오늘의 만리마대진군에서 억세게 다진 무비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림으로써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워야 할것이다.